

특별취재

김제 주거환경개선사업 '호응'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40가구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높아



정읍고부면 현장중심 복지서비스

정읍시 고부면이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발맞춰 기존 복지지원 팀을 맞춤형 복지팀으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이달 13일부터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우려 대상자 등을 직접 찾아가 방문상담을 펼치고 있다. 맞춤형 복지팀은 이에 앞서 지난 6월과 7월 초 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바 있다.

면은 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복지 수요 주민들을 발굴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성황산 일원 힐링숲 조성

부안군은 군민의 행복과 찾고 싶은 힐링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성황산 일원에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푸른도시과는 작년 11월부터 울 6월까지 0.6km 구간에 새로운 숲길을 조성하려고 선형개량 및 안내표지, 노선점비와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난간 및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 현재 약 4.0km의 생활권 숲길을 관리하고 있다.

성 황산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고향의 향수로 느끼고 걷고 싶은 메타세쿼이아거리, 피톤치드를 몸과 마음으로 향유 할 수 있는 라이프 편백 숲, 청령, 절조, 희망, 진실한 사랑의 동백 숲, 순수, 명량 유쾌한 사랑의 백합 나무 숲 등 휴양 및 치유활동을 할 수 있는 힐링의 숲으로 새롭게 변신 컴퓨터를 제공함으로써, 숲이 지닌 휴양의 기능과 보건의학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오복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국, 구절초, 금강화 등 5만 2,000본의 야생화를 식재하여 군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향기, 경관 등 산책·휴식공간은 물론 부안군의 새로운 힐링하기 좋은 관광병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보건소 '고혈압·당뇨 1일 캠프' 성황리 마쳐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만)는 심뇌혈관질환(고혈압·당뇨 등) 예방 관리를 위해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실시하는 고혈압 당뇨 교실 지속 참여자를 대상으로 최근 보건소층 회의실에서 "고혈압·당뇨 1일 캠프"를 실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고혈압·당뇨 1일 캠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체험활동으로 진행되었는데 교육체험 및 검진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였으며 고혈압 당뇨에 대한 건강 상식은 물론 영양식을 통한 음식 조리 방법과 세라밴드를 활용한 스트레칭 등으로 자가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체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나의 고혈압 당뇨 일기쓰기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김제시보건소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1층 회의실에서 고혈압·당뇨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혈압혈당 측정은 물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관리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올바른 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여 활기찬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김제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회적 손질이 필요한 저소득층 80세대를 선정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6년 상반기 집수리 사업을 마친 4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다. 조사기간은 2016년 상반기에 해당하는 지난 6월 30일까지였으며 세대주 현황 주거형태, 시공 만족도, 주거환경 개선 만족도 기타의견 등 총 3개 분야 10개 항목을 설문 조사했다. 설문 결과 주로 1~2인 가구의 60세 이상 노인가구(29명·73%)가 대부분으로 생

활수준으로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28명·70%)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만족하다'는 의견(8명·20%) '만족한다'(28명·70%)로 가장 많았고 보통(4명·10%), 불만족은 단 한명도 없어 '만족한다' 의견이 대다수였다. 예산액이 초과되어 돈을 내고 집수리를 해야한다면 집수리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21명·53%)이 '생각해 보겠다' 또는 '집수리를 하지 않겠다'로 답했다.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6년간 665가구를 사업안

료 하였으며, 올해는 80세대를 대상으로 집수리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한일택 건축과장은 이와 같이 수혜자의 만족도를 평가 분석한 결과에 따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6·25참전용사,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향후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 사업 추진시 만족도 조사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번 취업박람회에서 수료생들이 기량을 발휘한 200여점의 작품이 전시했고 면접이미지 컨설팅,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및 직업세계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시, 미니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가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서

정읍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 문화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생 수료식과 구인·구직자가 만나는 미니취업박람회를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모두 65명이 수료식을 받았다. 이들 수료생들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

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운영해온 3개 과정의 교육을 수료했다. 미니취업박람회에는 5개 기관·기업체인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이카데미, 정읍교육지원청, 신창어린아집, 합동건설(주), 농협회사법인 샘심(주)가 참여했다. 이들 기관과 기업체는 현장 면접을 통해 12명을 채용했다. 한편 이외에도 수료생들이 기량을 발휘한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고 면접이미지 컨설팅, 이력

서·자기소개서 작성법 교육 및 직업세계체험(진로직업리더, 카페바리스타)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김생기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업교육훈련과 취업박람회와 같은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과 사업 추진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등을 통한 전문 인재 양성에도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김제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 받는다. 김제시는 그동안 지역지원센터와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으로 활용하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시장 공약사업인 고용복지센터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을 위해 농어촌공사 동진지사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며 왔다. 이에 따라 고용과 복지에 필요한 교육관의 필요성이 시급하였으나 열악한 시 재정 형

편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방의 역점시책으로 특별한 재정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하는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신축을 통해 자원봉사자,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자원봉사 참여자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교육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진식 김제시장은 "그동안 지역자활센터 자원봉사자, 고용복지·센터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자원봉사종합센터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한 교육관 부재로 이웃 기관의 건물을 임대하여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금번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고용·복지 공동교육관을 신축하여 교육 참여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활 및 취업 의욕 고취와 자원봉사 등에 대한 참여의욕을 높이고 임대료 등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정읍소방서(서장 김일선)는 18일 오후 최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범시민적 관심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차 길 터주기」퍼레이드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긴급차량 출동 시 피양방법과 피양의무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소방차량 출동 시 피양의무 운전자의 협조가 미흡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또한 지휘차를 선두로 해 펌프차 등 총 5대가 소방서를 출발해 정읍역 사거리를 지나 명동의류~샘고을시장~충효동화교사거리~정읍시청을 돌아 소방서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대열을 이휘 약 10km 거리를 운행했고 소방차 길터주

기 및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가두안 내방송을 통해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소방차량이나 구급차량이 내려갈 때 길 터주기 요령은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선 이상 도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긴급차량은 1차선 통행),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는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긴급차량은 2차선 통행), 횡단보도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춘다 등 길 터주기 요령도 안내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식

김제시는 최근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물놀이장에서 이진식 김제시장과 나병문 김제시의회위원장, 시의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물놀이장 준공식 및 개장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장식은 풍물패공연 등 식전 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열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황리에 치러졌다. 시민문화체육공원 어린이물놀이장은 총면적 870㎡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과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으며 어린이 놀이공간에는 벽천분수, 조형놀이대 등 물놀이 기구 7종 등이 설치돼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회 정읍 역사·문화 골든벨에서 1대 골든벨의 주인공은 정읍고등학교 2학년 임태진 학생이 차지했다.

"정읍 역사·문화 골든벨 울려라"

시내 고교생 참가... 정읍고 양태진 우승

정읍시는 7월 중 청소년 어울림 마당 일환으로 지난 18일 '제회 정읍 역사·문화 골든벨'을 가졌다.

청소년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는 지역 내 12개 고등학교 100명의 학생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고, 1대 골든벨의 주인공은 정읍고등학교 2학년 임태진 학생이 차지했다.

이날 학생들은 고향 정읍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제를 풀었고 재치 있는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다.

제대 골든벨의 주인공인 된 임군은 "백제가요, 정읍사와 동화 농민혁명 정도뿐만 고향 정읍에 대해 알고 있었는데 대회를 준비 하면서 백제기 의사와 청암 이삼만 선생 등 훌륭한 인물과 굽직한 역사적 사건을 좀 더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돼 뿌듯하고 정읍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2위는 정주고등학교 1학년 김서연 학생이 차지했으며, 공동 3위는 정읍고 2학년 김진, 김형주 학생이 차지했다.

시는 "배 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가져오고 있는데, 우리 고장의 역사를 바로 알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월의 테마로 한 다양한 문제를 풀었고 재치 있는 답변으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사회는 전북과대학교 이만세 교수가 맡아 정읍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을 나누면서 청소년들에게 미래 정읍을 생각하게 하는 '어울림마당'으로서의 의미를 짚어 줬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중앙지구대, 피서철 도보순찰강화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 중앙지구대대장 이원호는 안전한 지역차안을 위해 피서철 급용기관, 현금대업소 주변의 강·절도와 빈집탈의범의 침입절도, 다중이용시설 내 범죄 등 각종 민생치안범죄가 우려돼 상가 일대를 방문하며 도보순찰을 실시했다.

도보순찰은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보다 상세하고 치밀하게 정황을 관찰할 수 있으며, 주민과의 접촉이 용이하여 대민관계의 기회가 높아 자칫 지나칠 수 있는 치안문제 점들을 알아내어 치안공백없는 안전

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한 순찰방법이다.

이원호 중앙지구대장은 "절도피해의 대부분은 문단속이 약한 틈을 타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장시간 이용하지 않을 시 차량단속 및 시설정정지점점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중이용구역에서는 가방이 잘 잠겨있는지 등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주민들의 신나는 휴가계획이 안전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순찰시 도보순찰을 병행하여 치안공백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벼이름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도디러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다

부안보건소 일본뇌염 방역강화

작은빨간집모기 채집밀도 높아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부안군 보건소가 일본뇌염 경보발령에 따른 방역강화 및 일본뇌염 매개체인 작은빨간 집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의 채집 밀도가 전체의 64.2%이상으로 조사됨에 따라 지난 7월11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은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렸으면 혈액 내로 전파되는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질병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자카베리러스 매개 모기 방제와 병행하여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서식하고 있는 논, 웅덩이 등에 유충구제작업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역활동을 추진 할 것이라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기의 활동이 활발한 7~10월까지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 야외 활동을 가능한 한 자제하며, 불가피한 야외활동시에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긴 소매, 긴 바지, 옷 착용 등)할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